



이준기 <시인>

빵, 빈곤과 풍요의 잣대

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만 서양떡의 의미에 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빵이란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된 단순한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엄청나게 복잡적이고, 광의적이다. 빵은 모든 먹거리를 총칭하는 상징어인 동시에 부(富) 또는 경제력을 재는 잣대의 의미를 갖는다.

가난했던 시대엔 모든 사람, 모든 나라의 열망이 바로 빵의 충족이었다. 개인은 한조각의 빵을 얻기 위하여 피땀을 흘려야했고 국가는 국민들의 빵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까지 서슴지 않았다. 빵의 실물인 서양떡의 형태는 실로 다양각색이다. 지팡이처럼 길게 생긴 놈에 공모양의 동그란 것이 있는가 하면 크기로 보아도 어른 머리통 만한 것에서부터 어린이 손가락처럼 가늘고 작은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은 곧잘 둥근 달로 비유되었으니 곱씹어 생각하면 비감을 금할 수 없다.

주린 배를 움겨잡고 둥근 달을 쳐다보면서 『저 달이 빵이었으면』하는 간절한 소망을 빌어 본 게 아니었을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몇 조각의 빵을 훔친 이후 지나간 옥살이에 고통받는 장발장의 인생유전. 빵맛은 감미롭지만 빵에 얽힌 이야기들은 비극적인 것이 더 많다. 예수는 빵은 곧 몸이요, 포도주는 피와 같다고 설교했다. 빵의 귀중함을 일깨우고 그 남용을 경계한 것이다.

필자는 일곱살때 「나마카시」라는 이름의 빵을 처음 맛보았다. 산골마을 면소재지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바로 앞집에 동갑내기 일본인 친구가 살고 있었다. 그 일본인 친구의 작은 방에 세들어 살던 열아홉살의 일본인 여선생. 우리는 그녀의 방에 자주 드나들었다. 숫자 익히기 카드와 블록맞추기 놀이기구를 대한 것도 그곳이 처음이었다.

달처럼 얼굴이 둥글고 환하던 그 여선생이 겨울 방학에 일본을 다녀온 날 손에 쥐어준 밤틀만한 「나마카시」의 황홀한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미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의 피안으로 흘러간 유년의 기억속에 무까에(迎)선생의 웃음 띤 얼굴이 떠오른다. 지금 그녀는 7순의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게다. 현해탄의 역사는 험난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맺은 인연의 끈은 다사롭다.

해방이 되어 중학교에 진학했다.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중학교(당시는 6년제)대항 육상경기대회, 블라스밴드를 앞세우고 종합운동장으로 향하는 우리 학교 응원단의 발걸음은 당당했다. 4백m 아시아기록 보유자인 엄팔룡 선수가 우리 학교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혼자 7~8종목 1위를 휩쓸었으니 종합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었고 응원 또한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장내의 스타 엄팔룡, 장외에도 한사람의 스타가 맹활약했다. 우렁찬 목소리의 빵장수였다.

『빠, 빠, 빠, 빠빠앙』.

느닷 없는 외침에 스탠드가 긴장하면 어김없이 짐자전거에 두세개 목판을 실은 빵장수 아저씨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빠, 빠, 빠, 빠빠앙』.

『빵, 빵, 빠앙 겐마이빵』.

외침이 반복되면 스탠드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기발하고 대담한 상술이었던 셈이다.

응원단으로 운동장에 동원되는 날은 아예 점심은 굶어야했던 그 시절, 푹푹 찜 넘어가는 소리가 큰 화음을 이뤘던 기억 또한 생생하다.

6·25동란이 터지고 운동경기는 중단되었다. 필자는 그 이후 한번도 종합운동장을 찾지 못했다. 오늘의 야구장이 그 자리인지, 아니면 지금은 아파트 숲으로 변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날의 청소년들은 이제 이순(耳順)을 넘긴 노년기로 접어들었다. 빵장수 아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존해 있다면 아마 8~9순의 노익장을 누릴 것이다.

빵의 추억은 아련하고 감미롭지만 빵의 풍요를 위해 달려온 이 나라의 근대화 역정은 쓰라림의 연속이었다.

거리마다 넘치는 풍요, 골목골목까지 빵집이 들어서고 바라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고급 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때로 빵집 앞을 지날 때면 뿌듯한 충족감과 함께 가난했던 옛 시절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남을 어쩔 수 없다. 저 빵은 어디서 온 것인가. 질곡을 딛고 피와 땀으로 빚어낸 눈물의 열매가 아니던가.

철인(哲人)은 『눈물젖은 빵을 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했다. 밥과 더불어 우리 식탁의 주인으로 자리잡은 빵, 빵의 값어치를 다시 한번 음미할 때다. 